◆ ■ ◆ ■ ◆ ■ ◆ ■ 이웃의 등대 · 민족의 구원선 · 세상의 나침반 ■ ◆ ■ ◆ ■ ◆ ■ ◆

“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이 평강의 왕이니라 ”

■ **이종윤 원로목사**

오늘날 평화주의자들이 예수님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듣고 사회주의·공산주의자들 같은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모독하는 자들과도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그들과도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의가 없는 평화는 야합이나 굴종이지 하나님의 평화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아가 조카 롯과 빼앗긴 재물을 적으로부터 찾아왔다. 오는 도중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의 환대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 그는 소득의 십일조를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드렸다. 그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자세히 아는 이가 없다. 고대 유대인들은 아마도 노아의 아들 ‘셈’일 것이라 하고 아브라함의 조상일 것이라 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이론을 받고 있다.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은 천사로 보았고, 암브로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런 의견들은 성경적 전거가 희박하다. 요한 칼빈은 “그 땅에서 바르고 진실하며 신앙의 인도자였을 것”이라 했다.

히브리서 7:2에서 멜기세덱의 이름의 해석은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우리의 의가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왔다. 시편 110편에서는 멜기세덱을 메시야 모형으로 분명하게 말한다.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다윗 왕이 주로 말하고 하나님이 원수들을 짓밟을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는 메시야의 자원하는 종들 즉 교회를 통해 그분의 통치가 확장됨을 묘사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메시야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을 선포하셨다. 메시야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개념이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삼권분립 제도처럼 왕과 제사장은 서로 견제하여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다의 웃시야왕이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이 생겨 왕궁에서 쫓겨나고 죽었다.(대하 26:16 이하)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Acton경의 명언은 예수 그리스도께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 ·인이시므로 시편 110편 4절과 2절에서 제사장직과 왕직을 영원히 가지신다고 선포하셨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서열을 따른 것이 아니고, 아론의 것보다 뛰어난 것으로 옛 언약인 시내산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를 반복되는 제물이 아닌 “단번에(once for all) 이루시고, 그의 행하신 참 속죄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옛 언약에 의하면 지성소에 제물을 바치어 이루어졌으나 새 언약의 메시야는 “예수의 피 곧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행 20:28)를 통해 구속하셨다. 제사장직과 왕권을 함께 갖고 계신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시작한 날도 없는 이다.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이요, 죽어야 자손이 제사장이 되지만 그는 먼저 의의 왕, 그 다음이 평강의 왕이시다. 아담 ·하와가 범죄 했을 때, 하나님은 각각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야 약속을 주셨다. 노아 시대 때도 홍수로 죄를 심판하시고 무지개 약속으로 평화를 주셨다. 광야에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땅이 입을 열어 삼키게 하시고 불뱀에게 물려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백성들은 불의한 나라를 세우고 싶었으나 주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세우신다. 오늘날 군사동맹, 경제협력, 자유왕래, 6자회담이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의의 원칙이 북녘땅에 세워지기 전엔 평화는 없다.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용서가 있고 평화가 있다. 의와 평화가 입 맞추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의 원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배우는 이 백성이 되시길 기도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691호] 2020년 6월 13일 발췌-

◆ ■ ◆ ■ ◆ ■ ◆ ■ ◆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 ■ ◆ ■ ◆ ■ ◆ ■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부와 총회와의 협의로 교회에서의 영상제작 및 송출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확대되어 이번 주일에는 교회에서의 1,2,3부 예배와 온라인 영상예배를 함께 드리며, 1,2,3부 예배 모두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다만 변경된 방역수칙상으로도 참여 가능 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예배 준비 인원을 중심으로 50명 미만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교회학교 학생이 있는 가정이나 건강상 불편이 있는 분들 및 온라인 접속이 용이한 분들은 이전처럼 가능한 온라인예배로 드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각 교구를 통하여 교회에서의 예배에 참석을 원하는 숫자를 예배시간별로 파악하여 분산, 조정한 후 개별적으로 참석하실 예배를 통보할 예정이니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내드리는 영상예배 지침에 따라 예배시작 5분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건하고도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은 아래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http://iseoulchurch.or.kr/upload/20200920_sermon.jpg

교회학교 예배와 찬양예배 및 새벽기도회는 종전과 같이 진행됩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강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레이),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남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바스티파, 사지, 에녹(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바사누뽀또,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갬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팔레유),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제30권 제38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20년 9월 20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 울 교 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2) ”

■ **고전 3:23**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이때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소망을 안겨다 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묵상해봅니다.

1. 주님의 것을 즐거워하라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으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은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힘입니다(느 8:10). 어떻게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들어 섬기므로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꿀같이 단 말씀을 즐거움으로 받고 동시에 소중히 여기는 것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것이 분명하다면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실천적 행위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주일 성수하기 힘들고, 교회를 사랑하기 힘든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것을 즐거워하며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출할 것인지 기도하며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주님은 이같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엡 3:20)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이 오래가는지,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창궐하는지, 남들은 겪지 않은 고통을 나는 왜 당하는지 그 깊으신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환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시련의 때에,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 다른 문제는 기도는 하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약 4:3)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부르짖는다면 언제나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기도훈련을 철저히 실천할 때입니다.

3. 겸손하라

우리는 주님에게 가까이 가서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 자신의 존재가치가 어찌 되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겸손입니다.(빌 1:20)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언제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그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맺는 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주님의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환난의 때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믿고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불태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Ⅰ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안인호 장로
Ⅱ	오전11시20분	서명철 목사	이관규 장로
Ⅲ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45: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23(시 43)···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맡 은 이
찬 송 Hymn ·····10(34)···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4:1-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충성"···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 ·····216(356)···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양예배(인터넷 영상)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장석남 목사

묵 도 ····· 다 함 께
성 시 ····· 히 12:2 ····· 인 도 자
찬 송 ····· 461(519) ····· 다 함 께
기 도 ····· 가 족 중
성 경 ····· 막 8:34-9:1 ····· 인터넷 영상
설 교 ··· "제자도(3) - 나를 따르라 ··· 인터넷 영상
찬 송 ····· 370(455) ····· 다 함 께
주기도 ····· 다 함 께

수요예배(인터넷 영상)

오후 7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전재홍 목사

묵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92:4 ····· 인 도 자
찬 송 ····· 373(503) ····· 다 함 께
기 도 ····· 가 족 중
성 경 ····· 벧전 1:13 ····· 인터넷 영상
설 교 ····· "나그네 신앙(2)" ····· 인터넷 영상
합심기도 ····· 인터넷 영상
주기도 ····· 인터넷 영상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 서명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어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Ⅰ부								
수요Ⅱ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금주의 성구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전 4:5)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결 혼

1. **하상영 군(5교구 하인선 장로, 남태순 권사의 장남)과 공해원 양(공성환 성도, 이수진 성도의 장녀) /**
   9월26일(토) 오후 1시 더 플라자 호텔 "별관" L 1층 그랜드볼룸(02-310-7720) / 1호선 시청역 6, 7번 출구
   (코로나19 관계로 양가 가족들만 참석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025명	260명	1,285명	268명	1,675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9/13)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9월13일	헌 금	10,253,000	
	출 판 비		210,000
	복리후생비		120,050
	통 신 비		148,480
	수도광열비		6,780
	차량유지비		279,660
	소모품비		409,300
	수선유지비		170,870
	식당운영비		304,020
	합 계	10,253,000	1,649,16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